

발명컬럼 III 종의 진화는 자연이 선택하고 발명의 진화는 시장이 선택한다.

종의 진화는 자연이 선택하고 발명의 진화는 시장이 선택한다.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바이블이다”



박진준 차장

한국특허위원회 위원장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은 1859년에 쓰여진 오래된 책이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세상을 문명화하고 개화시킨 기념비적인 책이면서 21세기 현재도 각 방면에서 응용되는 고전이다. 주된 내용은 세상의 수 많은 동식물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진화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자연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생존경쟁과 환경의 변화에 이기고 적응하는 종만이 계속성을 유지하고 진화 발전한다’는 진리는 현대의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커다란 국제 전시회나 세계적인 시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할인마트에 가보면 수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소비자를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쌓여있는 물건이 없이 동이 난 상품을 보면 공통점이 소비자의 심리나 사회흐름을 먼저 감지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객의 선택이 항시 더 진화된 상품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없는, 새로움이 없는, 시대의 상황을 읽지 못하는 상품은 약간의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아니고는 그냥 외면 당한다. 다양한 종이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커다란 환경변화에 순응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 변화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엄연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발명한 상품들도 시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외면당한다면 도태되거나 소수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작금의 환경변화는 지난 세기의 변화량보다 훨씬 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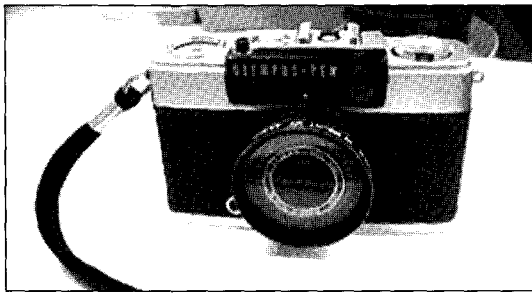
고 크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선택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날로그 카메라 사진기와 디지털 카메라 사진기의 시장 변화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술 진화의 사례가 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성장은 카메라뿐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하드 디스크 기술을 촉진시켰고, 나아가서 프린터에 디지털 사진을 인화 현상하는 기술을 접목시켜 인쇄기술을 향상 프린터가 고기능으로 진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퇴보는 카메라뿐 아니라 기존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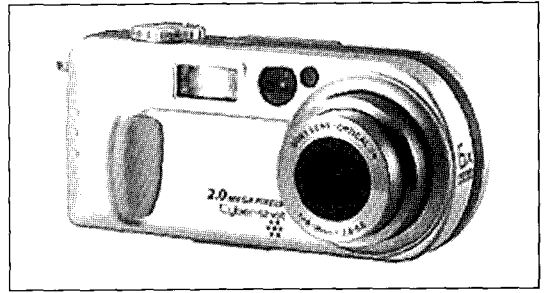
진판과 필름 현상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진 앨범에서 이미지 저장용 CD가 졸업 앨범을 대체할 날도 멀지 않았다.

디지털 환경 변화의 일례로 보여준 사진관련 기술변화 및 발명품들의 모습에서 '기술발명도 출생과 성장 진화 또는 도태를 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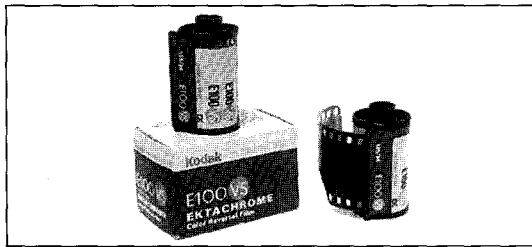
환경 운동가들은 환경 변화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제주도 해역에서 대형 열대어들이 자주 나타나 포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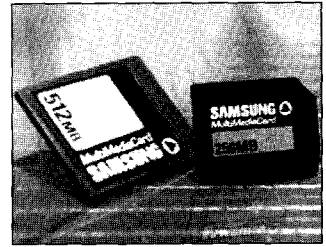
(아날로그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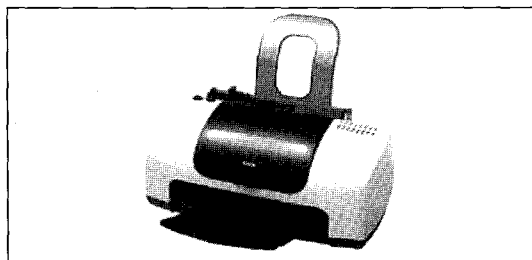
(디지털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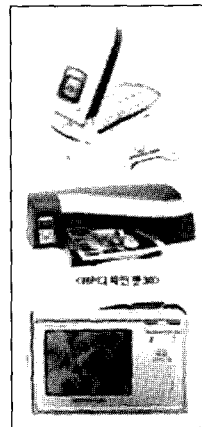
(아날로그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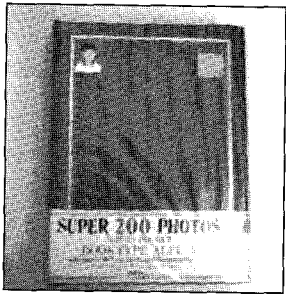
(디지털 메모리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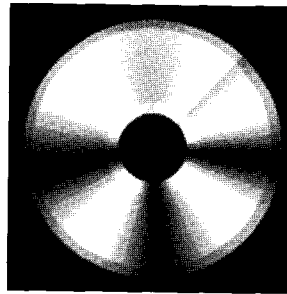
(일반 프린터)



(카메라용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프린터)



(사진첩)



(사진첩을 대신할 이미지 저장 CD)

스거리가 되곤 한다. 많은 기업들은 중국 동남 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며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동식물이든 기업의 기술이든 좋은 환경을 찾거나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장기 불황과 청년 실업 등 경제문제가 가장 시 급한 문제라고 모두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사 정리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경제가 제대로 풀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성장 진화 도태의 과정 중 하나를 빠른 속 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세계의 경제 환경이나 주변정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으로 가고 있다. 고유가 테러 시장개방 등 우리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환경 이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 처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은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잘 나가는 기업이나 업종은 환경변화를 예측 이미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 또한 적 합한 환경을 찾아서 순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주도 해역에 커다란 열대어 가 나타나서 서식하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고임금 고지가 등 기본적인 경제 토양이 되는 환경이,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자생할

수 없는 상태로의 변화가 극치를 이룬 상태가 되 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 축 또한 디지털을 축으로 하고 나노 (nano)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태동 해야 하고 생명공학과 환경이 어우러진 웰빙의 물결은 또 하나의 변화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호황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긴 터널의 불황 의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진화된 일본의 원동 력은 기초과학 기술을 통한 21세기형 기술 개발 이었다.

우리의 경제불황이 과거 일본과 다른 양상이 라고 분석하지만 부동산 거품 등 상당히 많은 부 분이 유사하다.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장환경 변화에 맞는 기술개발을 하 여 세계를 석권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 시장이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면 자연의 법칙처럼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높은 자살율은 사회적인 분위기 개인적인 정 신력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지만 장기적인 불황 의 늪을 헤치고 나오지 못한 사회경제적 요인 또 한 무시할 수 없다.

‘종의 기원’은 단순한 자연과 동식물의 법칙 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사도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철학이다. 21세기 새롭게 재편되는 환경변화에 우리 모두 생존하고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변화에 빨리 순응하고 생 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양에 맞는 사고로 시장 을 개척하고 시장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종의 진화는 자연이 선택하고 기술 발전은 시장 이 선택한다.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만이 우 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바이블이다.